

★ 중앙교회 구역 모임(21-51)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1.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쉥키에비치(H.Sienkiewicz)가 쓴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절정에 달하자 당시 로마시에 머물고 있던 교회 지도자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님께서 만일 우리를 떠나시기라도 한다면 로마 교회는 완전히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니 부디 몸을 피하십시오." 성도들이 하도 눈물겹게 간청을 하자 베드로는 환난이 지나기까지 당분간 몸을 피하기로 하고 밤중에 로마시를 빠져 나왔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오는 무렵에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황금빛 찬란한 빛을 뿜으며 떠오르는 태양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태양을 보는 순간 현란한 태양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다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당시 사용하던 라틴어로 말하면 '쿠오 바디스 도미네'(quo vadis domine)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바꾼다면 '퀴리에 푸 휘파게이스'(kyrie pou hypageis)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오다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한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한참동안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침묵 속에 돌부처처럼 앉아 있던 베드로는 드디어 결심이 선 듯 몸을 일으켜 자기가 오던 길로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신다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로마로 돌아간 그는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스승 되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있겠느냐라며 자기를 거꾸로 매달아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요청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림으로 영광스런 순교의 재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오신 곳과 가실 곳 (요한복음 7:25-36)

※ 구역장 혹은 강사는 “몸으로 읽는 요한복음”(저자:한기채 목사)의 pp.150-152.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였습니다.
2.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3.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육적 이해가 아닌 영적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나눔1.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27절)

나눔2.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알리십니까?(28-29절)

나눔3.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 어떻게 이해했습니까?(36절)

3. 은혜나누기

- 1)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이해합니까?
- 2) 코로나 종식과 믿음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 3) 중보기도
 - (1)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주님의 영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 (2)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며, 참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로 되게 하소서.
 - (3) 신앙의 열정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하소서
 - (4) 모든 교우들이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건강하도록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낙상 및 화재 등 겨울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 (5) 인도, 김봉태 / 홍은옥
캘커타신학교 사역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시고, 충실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소서

☎중보기도 핫라인 010-7528-3091

4. 사역나누기

- 1) 교회사역안내

● 12월 생명운동캠페인 85 “The more!”

/남은 한 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한 영적 성장 캠페인,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 3) 헌금
- 4) 주기도